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珍 源

濟 州 島 俗 談 의 特 性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 文 學 專 攻

高 在 奐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珍 源

濟州島 俗談의 特性

Characteristics of proverbs in Jeju Do.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함

1981年 1 月 日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高 在 奐

이 論文을 高在奐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1981年 月 日

審査委員長_____

審査委員_____

審査委員_____

目 次

I. 序 言	5
II. 背 景	8
(1) 立地性	8
(2) 歴史性	11
① 対内	11
② 対外	13
III. 形態의 特性	15
(1) 形式面	15
가) 一般型	15
① A型	15
② A + A型	17
③ A + B型	17
④ B型	19
⑤ B + B型	20
나) 特殊型	21
① 辞説型	22
② 事縁型	24
(2) 言語面	25
① 語形	26

② 末尾	27
Ⅳ. 生業上の 特性	29
(1) 農業	29
(2) 海業	31
(3) 雑業	33
Ⅴ. 素材の 特性	36
(1) 動物	37
(2) 用具	39
(3) 食物	40
(4) 風物	41
(5) 人物	43
Ⅵ. 主題の 特性	48
(1) 生計観	49
① 実利	50
② 苦衷	51
③ 勤実	52
④ 儉約	53
⑤ 自立	54
⑥ 強靱	55
(2) 倫理観	57

① 言行	57
② 警世	58
③ 人情	60
④ 守分	62
(3) 運命觀	65
① 運數	65
② 吉凶	66
③ 未來	67
 VII. 結 論	 70
 参考文献	 75
 英文抄錄	 77

1. 序 言

俗談은 애초부터 엄격한 개념 規定을 지을 수 있는 言語的 表現 樣式이 아니라 하나의 긴 說話的 이야기로부터 警句的 片言雙句에 이르는 包括的인 慣用句로 伝承되어 온 表現 樣式이다.¹⁾ 아울러 俗談은 方言과 같이 그 지방 특유한 郷土性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 時代相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²⁾

사실상 本島는 環境에 따른 背景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불우한 立地性과 歷史性을 背景으로 生計 維持라는 절실한 상황하에서 거의가 生業에 얽매어 忍苦의 생활을 体得하지 않고는 生存의 여지가 없었다. 궁핍과 忍從 속에서도 의연히 버티어 온 島民의 意識 構造는 여전에 대한 순응일 수도 있고 挑戰 내지는 抗拒일 수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활 체험의 표현은 大衆의 것으로 형성되어 어떤 形態로 伝播力을 갖고 伝承되게 마련이니 그 대표적인 것이 民謡와 俗談이다. 또한 이들은 民衆의 산물로서 민중이 共感하고 애용할 때 그 생명이 있는³⁾ 바 本島 俗談인 경우도 그 生態는 민중과 더 붙어 운명을 같이 하는 非專門的 口承文芸로서 그 지역 特性을 반영

1) 沈在箕 : 「俗談의 意味機能에 대하여」 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國語 國文學論叢 塔出版社, 1977. p 146

2) 張德順外三人 : 「口碑文學概說」 韓國口碑文學會, 一潮閣 1971. p. 189
徐石演 : 「俗談學研究」 朴仁守博士華甲紀念論叢, 來醒 朴仁守博士華甲 紀念論文集刊行會, 1974. pp. 311 ~ 312

3) 張德順外三人 : 前掲書 p 189

시키고 있다. 여기에 반영된 特性은 그대로 本島 俗談의 脈絡일 수 있으므로 이 脈絡의 源泉을 찾아 그 正體를 구명해 낸다는 것은 先人の 호홉이 서린 얼의 호롱불을 되밝혀 내는 작업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本稿는 바로 이 작업의 一環으로 俗談에 나타난 特色의 風土性과 연관된 生活相을 중심으로 그 特性을 抽出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로는 이렇다 할 論究의 뒷받침이 없는 不毛의 原点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苦衷과 애로로 인해서 때로는 당돌한 모험도 서슴지 않았다. 있다면 金榮敦教授⁴⁾의 俗談이 民謡에 密着 交流된 양상의 論述과 秦聖麒編⁵⁾「濟州島 俗談」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俗談集은 本質面에서의 俗談 与否와 本島 固有性 与否를 選別하지 않고 収録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가 못 됐다.

그래서 本人이 직접 蒐集한⁶⁾ 800餘 本島 通用 俗談을 李基文編⁷⁾

4) 金榮敦: 「民謡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濟州大學論文集 第10輯 濟州大學. 1978. pp. 24 ~ 52

5) 秦聖麒編: 「濟州島 俗談」 第1輯 1958. (프린트판)

“ 第2輯 1959. (프린트판)

6) * 蒐集期間: 1978. 8 ~ 1979. 8.

* 話者選定: 60歲이상의 無學者인 女人을 主對象으로함.

* 蒐集處 및 話者: 濟州道 北濟州郡 朝天面 新興里

김행녀 (82 여) 이 여 (75 여)

임태순 (71 여) 김화생 (63 여)

濟州道 北濟州郡 朝天面 威德里

박순방 (75 남) 양상옥 (65 남)

濟州道 北濟州郡 回左面 德泉里

강정호 (83 여) 박길녀 (73 여) 강인생 (66 여)

濟州市 吾羅一洞

문앵도 (77 여) 양기수 (61 여)

7) 李基文編: 「俗談辭典」 民衆書館 1962

「俗談辭典」에 하나하나 對備시켜 選別할 수밖에 없었다. 選別 基準은 위 辭典에서 그 收錄 與否를 중심으로 ①收錄돼 있지 않은 本島 通用의 것 ②本島 俗談이라고 명시했거나 本島語로 併記된 것 ③內容은 같으나 表現 形態나 素材가 달리 드러난 것 등은 일단 本島 俗談으로 選擇했다. 그리고 나니 296 篇으로 감축되어 微量인 감이 없지 않으나 分析 吟味해 보는 동안 이들만으로도 本島 固有의 輪廓이 드러났다. 이 296 篇을 기본 자료로 해서 다음 네 分野로 구분하여 考察해 나갔다.

먼저 本島 俗談의 生成 背景이 되는 環境적 여건인 風土性과 대내외적 歷史性을 제시한 다음에

1) 形態的 表現 形式과 言語

2) 生業과의 연관성

3) 中心 素材 分析

4) 내용을 主題別로 分類함으로써 抽出된 特性을 前掲 目次에 따라 그 要諦를 집약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 蒐集되는 자료의 補強에 따른 새로 나타날 수 있는 特性, 출현에 對備한 餘地가 남아 있지만 그런대로 未進性이 山積한 韓國 俗談界에 微力이나마 寄與할 수 있다는 所信과 함께 本島學의 一角을 더 더놓은 .계기와 窓口 하나를 더 마련했다는 一涖의 矜持를 가져 본다.

Ⅱ. 背 景

環境은 인간 생활의 무대인 만큼 그 무대를 背景으로 한 行動 半徑 속에서 실제 생활이 이루어져 나간다. 本島는 섬〔島〕이라는 공간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의 지배를 철두철미 시종일관 받아왔으니 그가 바로 二大 條件이라 볼 수 있는 自然的 條件과 人爲的 條件인 것이다.

自然的 條件이란 地理的 여건인 立地性을 말하는 것이고, 人爲的 條件이란 時空的 여건인 社會性 곧 歷史性을 말한다. 이 兩大 환경인 風土性은 本島民의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작용과 영향을 미침으로써 本島 特有의 생활 樣式을 낳게 했다. 그러므로 本島 환경 여건인 風土性을 이해한다는 것은 本島를 이해하는 길인 동시에 先人들의 意識 構造와 生活相은 물론 고유 문화의 형성 요인까지도 擴大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그 要諦를 집약했다.

1) 立地性

자연 환경인 立地性은 本島民처럼 삶의 條件으로까지 直結시켜 鬭爭과 克服의 極限을 体得함도 결코 혼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現代的 意識의 美觀을 지닌 景觀으로 승화된 자연이란 그當時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저 惡條件의 元凶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

사방이 바다로 휘감겨 絶海孤島性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토

지는 腐薄한 火山灰土인데다가 地殼은 玄武岩으로 형성되어 심한 漏水 現狀은 食水難과 함께 발동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主食은 으레 雜穀으로 노동력에 따른 노력 여하가 한 톨의 밥알에 增減이 작용하는 한 動寒과 強靱을 생활 신조로 삼아야 했다. 불가항력인 三災(風災·水災·旱災)의 惡天候를 당하고 나면 島民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悲運을 모면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生計 해결을 急務로 한 극한상황 속에서 男女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었다. 굶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알몸을 내던져 바다 속을 누비는 婦女子의 자맥질도 불가피했다. 이와 같은 불우한 환경 여건의 實相을 見聞한 記錄을 몇 개 들어본다.

“한라산과 州邑地에는 샘물이 매우 적었고, 시골 주민은 5리의 거리에서 물을 길면 가까운 물이며 종일 한두 번밖에 길지 못하는 곳도 있다. 잔 샘이 많고 반드시 나무통으로 지어서 다니는 데 (여자가 많이 지어감) 이는 많이 길어가자는 것이다.” 8)

“땅에 바위와 돌이 많아 흙에 두어 치나 퍼지고 흙은 가볍고 건조하기 때문에 밭을 개간함에 반드시 마소를 몰아서 밟으며 또 목면과 삼이 생산되지 아니하며 衣食이 다 모자라고 오직 해산물

8) 金 淨 :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 11

“漢拏及州邑地 泉井絶少 村民或汲水於五里則謂之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 而多醎泉 汲必以木桶負行 (凡什物多 女負行) 取多汲也 ”

을 캐어서 생업이 버금가게 된다. 風土錄에 의하면 三邑이 다 한라산 밑에 있어 평토는 切半도 되지 않아 밭을 가는 자는 고기의 배를 애는 듯해야 한다.⁹⁾

三災의 피해 또한 막심했다. 李朝 光海君 (1608 ~ 1623) 부터 1910 年까지만 해도 凶年이 회수가 70 회에¹⁰⁾ 달했다니 그 여파가 어떻게 되었을까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를 「耽羅紀年」¹¹⁾에서 몇 개引出해 보겠다.

“현종 11 生 (1670) 가을 8월에 큰 비바람과 海水로 온갖 곡식이 말라 죽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부어 죽는 자가 많았으므로 목사 盧錠이 조 만여 섬을 청하여다가 賑恤했다.”

“肅宗 37 年 (1711) 가을 8월에 大風雨로 평지가 내를 이루고

9) 金尚憲: 「南槎錄」前掲 耽羅文獻集 pp. 51 ~ 52

“地多岩石 鋪土數寸 土性浮燥 墾田必驅牛馬以踏 又不產木 綿麻 帛 衣食俱乏 惟採海物以仲生業 風土錄 三邑皆在漢拏山之麓 平土無半畝 耕者如挑剔無腹 ”

10)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 探究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제주도 문화재과 1979. p 17

11) 金錫翼: 「耽羅紀年」 前掲 耽羅文獻集 p 397 403 414

“顯宗十一年 秋八月 大風雨 海水灑百穀枯 黃餓殍相枕 牧使盧錠請粟萬餘石 以賑之 ”

“肅宗三十七年 秋八月 大風雨 平地成川 新村里人家七八區漂沒.”

“英祖四十年 秋大水 漂沒人家 百穀絕種 - 中略 -

英祖四十一生 春大飢 死者萬餘人 王聞而大驚 親製祭文 以下 令牧使設壇醑之 ”

신촌리 인가 78 구가 漂沒하였다.”

“英祖 40 年 (1764) 가을 큰 물이 저서 인가가 떠내려가고 백곡이 절종하였다.

……………; 中 略 ……………

英祖 41 年 (1765) 봄에 큰 기근으로 죽는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는데 왕이 듣고 크게 놀라 祭文을 스스로 짓고 목사로 하여금 제단을 세워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결국 本島의 立地性은 環海天險이요 地瘠民貧인 동시에 三災가 根幹을 이루고 있어 島民 생활의 刻苦 要因인 天敵이었다.

(2) 歷史性

自然的 環境의 不利는 島民들의 삶을 여유 없이 만들었던 惡條件에 被壓과 쓰라린 歷史가 겹쳐 늘렸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① 地方 官吏와 土豪의 収奪과 橫暴 ② 中央政府의 등쌀 ③ 苛酷한 貢賦 ④ 加重된 賦役 ⑤ 蒙古의 侵奪 등을 꼽고 있다.¹²⁾ 이 인위적 조건인 時空的 여건이야말로 기구하기 이를 데 없었다. 對內外的으로 당한 困辱의 痛苦는 離島 현상까지 낳아서 저주 받은 땅이 되고 말았다.

가) 對 內

12) 金榮敦: 「濟州島 民謡에 나타난 生活觀」 知愚辺時敏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78. p. 468

官吏와土豪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官尊民卑의 사상에 의해 島民은 収奪과 賦役, 貢賦를 떠맡아야 하는 苦役에 시달렸다. 그 實相이 「濟州風土記」¹³⁾에도 記載되어 있다.

“생복을 잡아다가 관가 소장의 역에 응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이 艱苦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염치없는 관원이 있어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명목을 교묘히 만들어 징색하기를 수 없이 하므로 일년 간의 소업으로는 그 역에 응하기가 부족하다. 하물며 관문에 輸納의 고통과 吏胥의 舞弊이 폐가 끝이 없으니 또 무엇으로써 의식의 資를 바라리요. 이런 까닭에 만일 탐관이나 만나면 소위 잠녀배는 거지가 되어 얻어먹으러 돌아 다닌다.”

또 金尚憲의 「南槎錄」¹⁴⁾ 에는

“漂海錄에 의하면 濟州 사람 孫孝枝가 말하기를 우리 濟州는 먼

13) 李 建: 「濟州風土記」 前掲 耽羅文獻集 p. 198

“生餽之捉亦如之 如是採取 應官家所徵之役 以其所餘典買衣食 其為生理之艱苦已不足言 而苦有不廉之官嫠生貧汚之心則 巧作名目 徵索無等 一年所業不足以應其役 況官門輸納之苦 吏胥舞弊之弊 罔有紀極 又何望其衣食之資乎 田是之故 若值貧官則 所謂潛女輩 未有免丐乞者云.”

14) 金尚憲: 前掲書 p. 54

“漂海錄 濟州人孫孝枝曰 我州邈在大海中 波濤視諸海 尤為凶暴 貢船商船 絡繹不絕 漂流沈沒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則必死於後 故境中男墳最少 閭閻之間女多三倍於男 為父母者生女則必曰 是善孝我者 生男則皆曰此物我兒 乃鯨鯢之食也云”

리 대해 가운데 있어 파도가 여러 바다에 비해 더욱 사납고 진상 다니는 배와 상선은 연락부절인데 표류하고 표몰하는 것이 열에 다섯 여섯이 되고 섬사람은 표류해서 안 죽으면 반드시 침몰하여 죽기 때문에 제주 지경 안에는 남자 무덤은 가장 적고 마을에서 여자는 많기가 남자의 세 곱이나 되므로 부모된 자로서는 여자를 낳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를 잘 섬길 자라 하고 남자를 낳으면 다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애가 아니라 고래와 드렁허리의 먹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賦役에 의한 피해가 本島 特性인 三多(石多·風多·女多)에 女子가 해당되는 來歷도 말해 주고 있다.

나) 對 外

異民族인 蒙·明의 侵奪과 倭寇의 노략질에 의한 被害相은 놀라운 것이었다. 蒙古는 本島를 牧馬場으로 強占하게 됨에 따라 포섭적인 면에서 벗어나 폭력적인 지배로 侵奪이 자행되었고¹⁵⁾ 그 뒤를 이은 明이 高麗朝에 濟州馬 二千匹을 強納토록 하자 三百匹을 獻納했음도¹⁶⁾ 그 횡포의 하나다. 倭寇인 경우도 그 노략질이 대단했었다. 高麗 忠惠王 2年(1341)을 시발점으로 李朝 光海 6年(1614)에 걸친 20

15) 金宗業：前掲書 p. 9

16) 金榮敦：「濟州島 民謡에 나타난 生活觀」 前掲 回甲論文集 p. 472

餘回를¹⁷⁾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침입 온갖 약탈과 醜行, 殺肉을 감행했기 이를 막아내기 위해 男丁은 軍役으로 동원되는 등 생명과 재산상의 위험에 직면하자 出陸을 갈망함으로써 離島 현상이 늘기 시작하였다. 이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함에 따라 仁祖 7年 8月에 本島民의 出陸을 금지하고 耽羅女人과 陸地部 男子와의 婚姻을 國法으로 정하여 규제하면서 女人 出陸을 특별히 경계했는데 이는 무려 200年에 가까운 純祖末(1830)까지 시행됐었다.¹⁸⁾ 이렇게 異民族으로 인한 受難을 단단히 치루고 보니 島民이 당한 물심양면의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17) 高性俊 : 「自律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前掲 耽羅精神探究세미나 주제발표요지 p. 133

18) 金泰能 : 「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 통권 27호 제주도 1960 pp. 103~109

Ⅲ. 形態의 特性

觀點에 따라 여러 形態로 分類해서 논의되겠지만 韓本土의 俗談과 다른 점은 두 가지 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形式面에서 본 辭說型과 事緣型이고 다른 하나는 言語面에서 본 語形과 末尾에서 드러난 特性이다.

(1) 形式面

가) 一般型

이 類型은 金宗沢의¹⁹⁾ 分類를 참고하고 張德順外 三人에²⁰⁾ 의한 分類形態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한 유형에만 典型性을 부여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다음 다섯 가지 類型을 통틀어서 一般型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分類하는 것은 어떤 特性을 추출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리 단계로서 유형의 분포를 알아 보려는 데 있다.

① A型 (160 篇)

상징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서 짝막한 句節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俗談은 이 類型에 해당한다.

19) 金宗沢: 「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 34·35
合併号 국어국문학회 1961. pp. 70 - 76

20) 張德順外 三人: 前掲書 pp. 195 - 198

○ 꼴채 부지런

(삼태기 부지런)

○ 돈당 탈 타먹기.

(튀다가 딸기 따먹기.)

○ 물 드러사 곰바리 잡나.

(물 들어야 고동 잡는다.)

○ 웨바농 코 툇다지기 쉽다.

(외바늘 코 떨어지기 쉽다)

○ 조근 케기 가시 세다.

(작은 고기 가시 세다.)

○ 큰 췌 큰 췌 흥명 출도 안 준다.

(큰 소 큰 소 하면서 꼴도 안 준다)

○ 고린 장 더디 옷나.

(고린 장 늦게 없어진다.)

○ 흐르 굿 보젠 코 까끈다.

(하루 굿 보려 코 깎는다.)

○ 초신착도 지름 불랑 구민 먹나

(죤신착도 기름 발라 구면 먹는다)

○ 즈드는 사름 *산지물에 가도 궁근 *광에 안나.

* 산지물, 샘 이름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함.)

* 광: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
게끔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놓은 것 여기서는 빨래터에 놓인
돌을 말함.

(걱정하는 사람 산지물에 가도 흔들리는 땅에 앉는다.)

② A + A型 (5 篇)

前後가 対偶 관계로 구성되었으나 前後 어느 하나도 개별적 의미가 없는 중첩의 효과로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俗談이다.

○ 전지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전지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 놀다 죽은 염송애기나, 기다 죽은 황밭잘새나.

(놀다 죽은 염소나, 활동하다 죽은 황소나.)

○ 말은 *요구리, 동은 *싸구리, 머국은 황밭잘새

(말은 요구리, 동은 싸구리, 식성은 황소.)

○ 흥홀 놈 나민, 망홀 놈 난다.

(흥할 놈 나면, 망할 놈 난다.)

○ 구쟁기 닥살 까먹어도 혼 돌탱이, 안 까먹어도 혼 돌탱이

(소라 껍질 까먹어도 한 바구니, 안 까먹어도 한 바구니)

③ A + B型 (25 篇)

前後 対偶 관계가 主從의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뒷부분을 강조하는 기능의 俗談이다.

○ 개똥이 무서완 피히는 게 아니고, 신놀 꼬너지카부덴 피훈다.

* 요구리 [jaguri], 약아빠진 사람(것).

* 싸구리, 대소변 따위를 싼(는) 사람(것).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신날 끊어질까 바서 피한다.)

○ 귀 존 동녕바친 셔도, 코 존 동녕바친 옷다.

(귀 좋은 동녕아치는 있어도, 코 좋은 동녕아치는 없다.)

○ 노리 꿰기 혼 점 먹젠 허당, 지 꿰기 열점 일혼다.

(노루 고기 한 점 먹으려다, 제 고기 열점 잃는다.)

○ 노 허끈 하르방은 아장. 울곡, 실 허끈 할망은 아장 쫓다.

(노 흐트린 할아버지는 앉아서 울고, 실 흐트린 할머니는 앉아서 쫓다.)

○ 남조 드딘 풀은 유울곡, 예췌 드딘 풀은 안 유운다.

(남자 드딘 풀(草)은 이울고, 여자 드딘 풀은 안 이운다.)

○ 맥 진 사름 춤추난, 몰똥 진 사름도 마치 춘다.

(맥 진 사람 춤추니, 말똥 진 사람도 같이 춘다.)

○ 울르는 영장에 가지 말앙, 지게 송장에 가라

(요란한 장례에 가지 말고, 지게 송장에 가라.)

○ 췌 몰 성안 감시민, 뜰 몰 *마으니므르 간다.

(빠른 말 성안(城内)가고 있으면, 느린 말 마으니므르 간다.)

○ 큰 낭게 먹은 옷어도, 큰 어른 먹은 싯나.

(큰 나무에 먹은 없어도, 큰 어른 먹은 있다.)

○ 혼 사름 투라지민, 유섯 가시(갯세)가 투라진다.

* 마으니므르, 지명(제주시 사라봉 남쪽에 위치한 일주도로 변)

(한 사람 비틀어지면, 여섯 사이가 비틀어진다.)

④ B型 (82 篇)

A型과는 相對的인 것으로 表面 自体의 의미가 그대로 原觀念의 기능을 발휘하는 俗談이다.

○ 귀신 위하영 손해 웃나.

(귀신 위하여 손해 없다.)

○ 뽕광 심백은 하여도 개심이람 말라

(납과 경쟁은 하여도 시기는 말라.)

○ 미운 놈 보친 질 나는 밧 버실라.

(미운 놈 보려거든 질 나는 밧 경작하라.)

○ 씨앗은 동세보다도 낫다.

(시앗은 동서보다도 낫다.)

○ 사름광 족박은 신 대로 쓴다.

(사람과 족박은 있는 대로 쓴다.)

○ 욕심이 세면 도둑이 반이여.

(욕심이 세면 도둑이 반이여.)

○ 아이광 늙으닌 궤는 디로 간다.

(아이와 늙은이는 사름하는 메로 간다.)

○ 줍녀 애긴 일췌만에 것 맥인다.

(줍녀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 켜 늙 쫄 늙만 못홀다.

(빠른 놈 느린 놈만 못한다.)

○ 흙쟁이 흙영 그른 더 웃나.

(예도(하십시오) 써서 그른 곳 없다)

⑤ B + B型 (24 篇)

對偶 관계의 前後 어느 것도 각각 독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前後를 바꿔도 유효한 俗談이다.

○ 잣쟁이 헛갓 쓰꼭, 무당 놈 빌영 굿한다.

(잣장이 헛갓 쓰고, 무당 남 빌어서 굿한다)

○ 가시어멍 장 웃인 짠에, 사위 국 실픈 짠에

(장모 장 없는 짠(판)에, 사위 국 싫은 짠(판)에.)

○ 드를 쉼 눈을 보꼭, 찌를 쉼 빨을 보라.

(떨 소는 눈을 보고, 찌를 소는 빨을 보라.)

○ 상뒤 가 온 비바리, 설 념은 짐치.

(모임에 가 온 처녀, 시기 지난 김치.)

○ 애기 한 계와시, 물 한 장재

(애기 많은 거지, 말(馬) 많은 부자.)

○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 잘ㅎ여도 혼 구승, 못ㅎ여도 혼 구승

(잘해도 한 흥(불만), 못해도 한 흥(불만).)

○ 준 원순 싯꼭, 안 준 원순 웃다.

(준 원수는 있고, 안 준 원수는 없다.)

○ 질이 웃으난 혼 질을 전곡, 물이 웃으난 혼 물을 먹나

(질이 없으니 한 질을 전고, 물이 없으니 한 물을 먹는다.)

○ 집안에 숯이 들젠 흥민 뜰은 독도 고기약항곡, 기시린 듯이 두
름을 돈나.

(집안에 흥이 들려면 뜰은 닭도 꼬끼요하고, 그슬린 돼지가 뽕박
질 한다.)

以上 296 篇의 俗談을 分포별 비율을 보니 < A 型 > 이 54.05 %로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 < B 型 > 27.70 %, < A + B 型 > 8.44 %, < B + B 型 > 8.10 %, < A + A 型 > 1.68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特殊型

俗談의 형식은 간결한 것이 그 特徵이다.²¹⁾ Howell 도 俗談의 三要素로서 간결 (Shortness) · 의미 (Sense) · 짚맛 (Solt) 을 내세우고 있다.²²⁾ 이렇듯 간결성은 俗談 形式의 要諦인 바 명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利点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本島 俗談의 일부인 少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21) 徐石演 : 前掲書 p. 312

22) 徐石演 : 上同 p. 328

金思燁 : 「俗談論」 大建出版 1953.

康寿彦 : 「韓 · 英語의 俗談 比較」 濟州大學論文集 第 9 輯 濟州大學 1977. p. 187

長型の 破格的인 辭說型和 内在하고 있는 土俗的 來歷을 못 알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事緣型을 特殊型으로 보고 本島 俗談의 形態的 特性으로 設定했다.

① 辭說型

지금까지 알려진 長型の 것으로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고 가면서 업힌 애기 가깝해 한다 빨리 걸으라 한다>²³⁾와 <일을 하려면 어처구니 독 바르듯 하고 삼동서 김 한 장 쳐부시듯 메뚱이로 새알 부시듯 하라.>²⁴⁾ 이 둘을 지적할 수 있다.

전자는 李乙煥의 「韓國 俗談의 어·귀·절·유형 연구」에서 最長型の 것으로 제시하면서 30 음절 전후의 것을 長型的 것으로 言及했고 후자인 경우는 本人이 李基文編 「俗談辭典」에서 찾아 본 결과 나타난 最長의 俗談이다. 音節數를 따져 보면 전자는 32 음절이고 후자는 36 음절이다. 本人의 가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本島 俗談을 들춰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오지 웃인 웨삼춘 보름 물찌에 죽언 강이 보말도 못 잡아 먹게
훈다. (27 音節)

(의지 없는 외삼촌 보름 썰물에 죽어서 게와 고동도 못 잡아 먹
게 한다.)

23) 李乙煥: 「한국 속담의 어·귀·절·유형 연구」 한글학회 50 돌
기념논문집. 1971. p. 343

24) 李基文: 前掲書 p. 413

○ 설보리 왓디 들어난 세광 지집방에 들어난 늬은 혼 번 가나민
주으룻혼다. (29 音節)

(설보리 밭에 들었던 소와 계집방에 들었던 늬은 한 번 가노으
면 솔깃한다.)

○ 집안에 중시 들젠 호민 튼은 독도 고기약호곡, 기시린 듯이 두
름을 돈나 (29 音節)

(집안에 품이 들려면 튼은 닭도 꼬끼요하고, 그슬린 돼지가 뽕박
질 한다.)

○ 질삼발 늬은닌 죽언 보난 *미녕소중이가 아홉이고, *좁너 늬은닌
죽언 보난 일곱 애비 아들이 들르는 *도곰수전이 하나더라. (48
音節)

(질삼발 늬은이는 죽어서 보니 무명소중의가 아홉이고, 잠너 늬은
이는 죽어서 보니 일곱 애비 아들이 드는 (拳) 도곰수전이 하
나더라.)

이들의 표현 形態가 本稿 序言 註 1) 의 引文에 明示된 대로 俗談
은 애초 엄격한 規制力이 없는 包括的 慣用句로 傳承되어 온 표현
樣式이라고 한 原始性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어떤 표현 기교가 중
시되지 않은 현실적 체험의 眞을 순수하게 直觀적으로 나타내면 됐다.
短型은 長型의 整齊된 것일 수 있다고 볼 때 이야기調의 긴 辭說型은

* 미녕소중이; 무명으로 만든 여자의 속에 입는 중의.

* 도곰수전; 해녀가 입는 음부를 가리는 속옷.

俗談의 原始性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런 점에서 本島 俗談의 일부는 위에 例示한 마지막 俗談처럼 한 토막 이야기調로 길어져서 48 音節이나 되는 國內에 현재 알려진 것으로서는 最長型인 것이다. 특히 辭說調의 說破性은 民謡에 轉用 되므로써 長型化의 면모를 보여 주고도 있다.

말 물랑 삼년 귀막앙 삼년
눈 어두왕 삼년 연삼년 사난
가랜 오랜 말이 웃어라.²⁵⁾ (맷돌·방아노래)
(말 물라서 삼년 귀먹어 삼년
눈 어두워서 삼년 연삼년 사니
가라 오라는 말이 없더라.)

이 民謡는 그대로 既存의 外部 俗談을 첫머리에 導入 그 다음의 謡詞이면서 固有 俗談일 수 있는 辭說調의 原始性을 노출시켜 本島 民謡를 형성시킴과 동시에 하나의 俗談으로 活用되기도 한다.

② 事緣型

俗談 이면에 담긴 事緣을 못 알고는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어쩌면 通俗性을 잃은 偏狹的인 면도 없지 않으나 오히려 특이하다는 데서 郷土性이 강할 수도 있다. 그 지방의

25) 金榮敦·「民謡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前掲論文集 p. 31
“ 「濟州道 民謡研究 上」 一潮閣 1965. p. 129, 謡番 493

習俗과 性向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 두붓물에 손 댄 며느리.

○ 국 하영 먹으면 가시어멍 눈 뻔라진다.

앞의 俗談을 표준어로 바꾸면 <두붓물에 손 댄 며느리.>란 말로서 그 本意는 糟糠之妻와 연관시켜 저버릴 수 없는 儀禮를 갖추어 맞아 드린 며느리임을 나타낸 말이다. 왜 그럴까? 그 事緣을 모르고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두부는 婚姻時 내놓을 수 없는 常備 飲食이어서 직접 私家에서 만드는데 그 功力은 여간 아니다. 이런 노고의 과정을 겪고 만인의 인정 속에 맞아들인 며느리고 보면 결코 輕視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또 하나는 <국 많이 먹으면 장모 눈 망가진다>는 말인데 얼핏 보면 사위가 食性이 왕성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장모가 의아하여 놀란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현대식 구조의 부엌이 아닌데다가 쪼갠 찰밥을 주된 열원으로 했으니 국을 많이 먹으면 많이 뿜여야 되니 자연히 煙氣의 피해를 많이 입어 장모의 눈이 상하게 된다는 諧謔的인 來歷을 지닌 俗談임을 알 수가 있다.

(2) 言語面

本島 方言은 特異多様하다. 그렇지만 시대적 變遷과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老年層을 제외하고는 方言 사용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인가는 本島에 관한 학문이 더욱 강화되고 사라져 간

것들에 대한 발음이 강조될 때 方言의 발음이나 연구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게 정한 이치다. 이런 관점에서 本島의 方言과 言語는 學究的 대상으로서의 형태 保存傳來가 중시되게 마련이다. 이 保存傳來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俗談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俗談은 언어 표현의 기능이고 보면 言語學的 측면에서 별도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은 외형적으로 직감할 수 있는 일면을 제시해 둔다. 言語는 자체 단독으로 연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隣接 周辺科學이 상호 유기적 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言語學인²⁶⁾ 이상 俗談에 사용된 言語群은 그 좋은 자료일 수가 있다.

① 語 形

俗談의 어휘들이 方言 같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15세기 語形 그대로의 것이나 그 變遷 과정에서 나타난 古語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느 地域性의 것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國語 變遷의 資料로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마치 杜詩諺解 初刊本과 重刊本이 같은 訳詩集이지만 150餘年 지난 다음의 言語에서 많은 音韻 變化가 생겼음을 볼 수 있듯이²⁷⁾ 本島 俗談에서도 그 類似性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 李乙煥: 「國語學概說」 國語國文學叢書(第1輯) 宣明文化社
1973. p. 29

27) 全在昊: 「杜詩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上同 pp. 142 ~ 144

- 애기 한 게와시, 물 한 장재.
(애기 많은 거지, 말(馬) 많은 부자.)
- 돈당 탈 타먹기.
(뛰다가 탈기 따먹기.)
- 질엿 돌도 연분이 셔사 찬다.
(질엿 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즈드는 사름 못 홀 일 웃다.
(걱정하는 사람 못할 일 없다.)

위에 사용된 俗談語를 15세기 語形이나 그 變遷相을 검토해 보면
한 '하다(多)'의 관형사형
물 '물(馬)'로 字의 現存
돈당 '돈다(走)'의 중단형
셔 '이시다(有)'의 제 1 부사형 '이시어'의 축약형
사름 '사름(人)'의 字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화
홀 '홀다(為)'의 관형사형

등으로 古語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末 尾

서술문에 있어서의 末尾는 <~다.>가 그 典型인 原形으로 되고 있으나 本島 俗談에서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다.

- 개 따릴 막맹이도 웃다.

(개 때릴 막대기도 없^다.)

○ 초신착도 기름 불랑 구민 먹^나

(좌신착도 기름 발라 구면 먹^{는다}.)

○ 김이 보말도 집은 싯^저

(계와 고동도 집은 있^다.)

○ 짐 진 늬이 팡을 좇^추

(짐 진 늬이 팡을 찾^{는다}.)

위에 나타난 대로 終結語尾 <~^다. ~^나. ~^저. ~^추.>는 현대 국어에서 서술형 종결어미의 原形인 <~^다.>와 같은 형태와 기능을 가진 특이한 語末尾인 것이다.

이렇게 언어적 측면에서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특이한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은 俗談을 그 기능면에서만 의의를 찾을 게 아니라 言語學的인 면에서도 考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再言하지 않을 수 없다.

Ⅳ. 生業上의 特性

衣食住 해결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그 중에도 먹어야만 '산'다는 食生活 여하에 따라 생활상이 달라진다. 本島인 경우 앞에서 불우한 환경 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지만 最急先務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가 惡條件의 극복과 병행해서 生計 해결을 위한 生業에의 매진이다. 그 生業의 형태는 부분적인 家内 手工業과 雜業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主業은 농토에 밥줄을 건 農業과 바다를 무대로 한 海業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本島 俗談의 基底를 형성하는 정신적 바탕의 일부인 自立·勤實·儉約·強靱이 生業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환경적 風土性이 주는 영향은 그만큼 큰 것이었다.

(1) 農 業

農業은 우리의 전통적 主業으로 가장 신성시하여 '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했음은 周知하는 사실이다. 本島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火山灰土의 瘠薄性과 三災를 원망하고 坐視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보면 島民의 능력과 수단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능력과 수단이란 當時로서는 농토의 확보와 人力 곧 노동력과 정신력이었다. 이 三者가 合致調和를 이룰 때만 糊口之策은 물론 생존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많이 짓는 가운데 해를 입어도 거둬드리는 게 있기 마련이니 자연히 耕作 면적에 비례한 노동력과 그 과정에서惹起되는辛苦를 극복할 수 있는 勤實하고도 強靱한 정신력이 없이는 불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제 직접 農業과 관계된 俗談 10餘篇 중에서 몇 편을 살펴 보겠다.

○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 담 터진 밭디 밭쉬 안 들랴.

(담 허물어진 밭에 마소 안 들랴.)

○ 체 불리는 부재 웃다.

(겨 불리는 부자 없다.)

○ 촌 부젠 밭 부재

(시골 부자는 밭 부자.)

農業은 제일의 主生業인 데도 俗談 數에서는 貧弱한 편이지만 농업과 關係된 素材面에서 ²⁸⁾ 보면 그 비중은 적은 것이 아니다. 위에 열거한 첫번째 俗談은 기후에 따른 受益性을 말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耕作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敎示이며 세 번째 것은 富者이지만 겨도 바람에 날려 보내지 않은 儉約性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俗談은 典型的 本島民의 富의 蓄積을 드러낸 말로서 농토의 所有量 여하는 富의 尺度로 ²⁹⁾ 삼았던 當時 社會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8) 本稿 V. '素材의 特性'에 제시된 '素材分類表' 參照

29) 姜景璿: 「風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前掲 耽羅精神探究세미나 주제발표요지 p. 80

“前近代의 生産樣式에서는 「富의 基本形態」는 土地이며 이것이 生活手段, 生産手段인 것이다.”

(2) 海業

오늘날 水産業이 前身으로서 그 규모와 형태로 보아서 단순히 바다를 이용한 海物採取의 生業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農業 다음으로는 二次 生業으로 海邊 住民에게는 없지 못할 生計 수단이고 보면 자연을 활용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 작업은 男女 共同의 딸치 후리는 것도 있었지만 海底의 산물인 海草類・生鰓・소라 등은 女人인 潛女(海女)에 의해 주로 채취되었고, 海邊이나 海上에서의 고기를 낚는 것은 男子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 특히 海女는 점차 外部 就勞 길에 올라 韓半島는 물론 日本과 中國, 러시아까지³⁰⁾ 활동 무대를 넓혔으니 本島民이 바다에 걸고 있는 삶을 위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本島의 海業은 이토록 廣域化한 것으로서 그 實相은 括目할 만한 것이나 俗談에 반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증거로는 李基文編 「俗談辭典」에 수록된, 7,000 餘 俗談에서 조사 집계해 본 결과 海業(水産業)에 관계된 俗談은 모두 142 篇으로서 전체의 2.03 %였다. 本島인 경우 本人이 갖고 있는 296 篇의 俗談을 중심으로 조사해 본 결과 14 篇으로서 4.73 %로 나타났다. 이것은 韓本土의 것에 二倍를 뛰어 넘는 높은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다가 그 속에 반영된 정신과 생활 모습은 特記할 만한 것이다.

30) 金榮敦, 「濟州島 海女の 出稼」石宙善教授 回甲紀念 民謠學論叢 1971. pp. 309 ~ 310.

○ 브재기 사흘 세민 강알 굶어본다

(어부가 사흘 세면 사타구니 굶어본다.)

○ 보말도 켜기여.

(고동도 고기여.)

○ 좀너 애진 일뿔만에 것 백인다.

(잠너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 질삼빔 흐으닌 죽언 보난 미녕소중이가 아홉이고, 좀너 흐으닌
죽언 보난 일곱 애비 아들이 들르는 도곰수전이 하나더라.

(訳은 앞의 事緣型 例示 参照)

첫째와 둘째 俗談은 주로 정신력에 바탕을 둔 勤實性과 儉約性을 말한 것이고 셋째와 넷째 俗談은 生活相에 바탕을 둔 困窮性을 잘 반영시킨 것이다. 오죽해야 生後 이레밖에 안 된 어린 젖먹이에게 밥을 먹여야 할 정도라면 그 母體의 노고와 빈곤했던 사회의 모습이 明若觀火해 진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그 아이의 성품과 기질은 어떨까? 自立과 克己의 強韌性으로 굳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마지막 俗談에서 볼 수 있는 海女의 終末은 비참한 것이다. 勞苦에 비해서는 너무나 실속이 없는 애쓰기만 했다는 일곱 父子之間이 들어야만 하는 속옷이 주는 의미는 그저 肉身으로 헤쳐 나가는 苦衷의 상징인 것이다. 그런데다가 雪上加霜으로 官吏의 收奪까지 加重되었으니 延命에 급급했던 社會相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3) 雜 業

生業面에서 主宗이었던 農業과 海業을 제외한 기타 生業을 모두 雜業으로 처리하였다. 家内 手工業으로서 女人에 의한〈양태·망건〉³¹⁾ 製作業이 全島的인 것은 못되지만 濟州市와 朝天面을 중심으로 성행되어 家計에 큰 보탬이 되었고 이외로도 織業·木工業·畜業·商業·사냥 등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① 冠網業

○ 벌립 썸 보곰질 혼다.

(병거지 썸서 볍음질 한다.)

○ 갓쟁이 헌갓 쓰곡, 무당 늪 벌렁 굿 혼다.

(갓장이 헌갓 쓰고, 무당 남 벌어 굿한다.)

② 織業

○ 노 허곤 하르방은 아장 울곡, 실 허곤 할망은 아장 푼다.

(노 호트린 할아버지는 앉아서 울고, 실 호트린 할머니는 앉아서 푼다.)

○ 질삼빳 늑으닌 죽언 보난 미녕소중이가 아홉이고, 촌녀 늑으닌 죽언 보난 일곱 애비 아들이 들르는 도곰수견이 하나더라.

(訳은 앞에서 参照)

31) 金榮敦 「제주도 민요 맺돌·방아노래」 국어문학 82. 천봉 이능우 박사 환갑기념호. 국어국문학회. 1980. p.28.

③ 木工業

○ 목시집에 현문 돈다.
(목수집에 현문 단다.)

④ 畜業

○ 큰 쇠 큰 쇠 헛명 출도 안 준다
(큰 소 큰 소 하면서 팔도 안 준다.)
○ 애기 한 게와시, 물 한 장재.
(애기 많은 거지, 말(馬) 많은 부자)
○ 서픈짜리 니엄 들러보지 말라.
(서툰짜리 잇몸(이빨) 들쳐 보지 말라.)

⑤ 商業

○ 어려와 가민 다십어멍 궤 푸는 더 간다
(어려워 가면 제모 궤 파는 데 간다.)
○ 호픈 옷인 놈이 장에 강 큰 떡 들른다.
(한푼 없는 놈이 장에 가서 큰 떡 든다.)
○ 말이 고우민 곳인 향 사례 갓당 현향 상 온다.
(말이 고우면 새 향아리 사례 갓다가 현 향아리 사서 온다.)

⑥ 사냥

○ 사냥개 언 똥 들러먹듯.
(사냥개 언 똥 훔쳐먹듯. (집어삼키듯))

○ 사냥 들어사 개 가르친다

(사냥 들어야 개 가르친다.)

○ 심은 꺾겨 텅, 늑은 꺾겨 심쟁 혼다.

(잡은 꺾겨 두고, 나는 꺾겨 잡으려 한다.)

이들은 韓本土와의 流通이 원활하지 못한 絶海孤島의 불리성에서 오는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차피 自力에 의한 自給自足으로 생활해야만 했던 島民像을 읽을 수가 있다

V. 素材의 特性

俗談도 문학예술의³²⁾ 하나로서 그 효용성이 평가된다 기록 예술에 있어서의 題材나 素材의 선택은 작자의 의도를 구현시키기 위한 불가결의 요소다. 虛構性을 생명으로 하는 創作에 있어서도 실제 생활 주변에서 素材를 택함으로써 독자에게 친근감과 관심을 주는 것이 상례다. 架空의 진실이 아닌 생활 체험을 토대로 산출된 俗談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생활과 밀착될 수 없는 素材는 무시되고 있다. 비록 그 俗談이 주는 의미 기능은 관념적일 수 있으나 그 형태를 구성하는 主成分의 素材는 생활과 직결된 具象物이 절대 다수다. 假想的 實體란 있을 수 없다.

本島 俗談에 있어서는 더욱 환경적 風土性이 생활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에 등장하는 用具에 따른 素材群을 蒐集하면 民俗 資料의 목록 같은 古風이 풍긴다. 이것은 그대로 本島 傳統的 特性에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이므로 素材 分析에 따른 特性 抽出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음의 分類들은 俗談에 사용된 素材가 거의 體言인 名詞를 核心으로

32) 金宗澤: 前掲書 p.61 “俗談은 言衆의 詩다.”

徐石演: 前掲書 pp.373 ~ 382

〈文芸로서의 俗談〉에서 俗談은 언어작품에 의하여 일어나는 순수감동이며 예술적 감동으로서의 문예성을 전제하고 하나하나를 독립된 문예작품으로 인정한 뒤 知에 의한 문예라고 判示함으로써 1)承批評文芸임을 力說하고 있다

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추상적인 것은 제외시키고 動物・用具・食物・風物・人物에 관한 具象名詞 402 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1) 動物

〈表・1〉 動物分類

上位材	中位材	下位材	累計	%
動物	家畜	소(20)・개(19)・말(12)・ 돼지(3)・닭(2)・양(1)	57	65.52
	野生	꿩(4)・새(3)・노루(2)・뿔(2) 고양이(2)・지비(2)・파리・뱀 가마귀・곰범이(각 1)	19	21.84
	海物	고등類(5)・魚類(4)・게(2)	11	12.65

本島에서 棲息하고 있지 않은 동물이거나 實利와 관계가 없는 家畜類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表・1〉은 바로 그 양상을 입증한 것이다.

동물 87 개 가운데 家畜 57 개로 으뜸이고 野生類와 바다 동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가축인 소(牛)와 말(馬)이 많은 것은 主生業인 농업과 밀착된 것으로서 耕作上 없지 못할 營農에의 역할이 대단했었다는 증거다.

또 개(犬)가 소 다음으로 많은 것은 財物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防犯과 生計 補助를 위한 사냥의 有用性을 말해 준다. 다음 〈表・4〉에 나타난 도둑・거지와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증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대우를 못 받는 존재였다. 혈값을 나타낼 때는 으레 <개값>이라고 했고 <개는 제 발톱만큼만 먹어도 산다.>고 하여 유용한 동물이면서도 食糧을 축낼 수 없다는 當時 食生活의 片鱗을 엿볼 수 있다.

海物인 바다 동물은 11개가 모두 食用이란 점이다 앞의 生業 部門에서 밝힌 것처럼 바다를 生計 해결의 무대로 활용한 것과 일치한다.

野生 동물은 本島 風土性에 적응해서 棲息하는 동물뿐이지 猛獸같은 非風土性의 동물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事實性에 뿌리 박고 있다.

金善豐의 ³³⁾ 「諺語素材의 分析」에 의하면 전체 素材 4,782개 중 陸上 동물 소재가 454개로서 전체 15.54%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등장 순위를 보면 개(86), 소(67), 호랑이(53), 말(42), 등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自生地인 國籍面에서 볼 때 非事實的인 코끼리, 잔나비도 등장하고 있다. 量的인 면에서 보면 개가 으뜸이지만 本島의 경우는 소가 으뜸으로 生業에 연관된 重農性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동물 소재 분류에서 본 特性은 風土性과 생활 여건에 부합된 事實性에 基盤을 두고 있다

33) 金善豐: 「諺語素材의 分析」 韓國民俗學. 民俗學會. 1969. pp. 5 ~ 6 .

(2) 用 具

〈 表 · 2 〉 用 具 分 類

上位材	中位材	下 位 材	累計	%
用具	食	밥(3)·불(2)·쪽박(2)·자루(2)·병(2)·항아리(2)·시루·망태·바구니·삼태기·사발·길마·허벅·짐·床·씨·부뚜막·방아·쇠스랑·마제·꿀·부지갱이·맷돌·쟁기·칼 (각 1)	32	41.56
	住	집(10)·문(3)·길(3)·떠(2)·방·케·방석·화로·돌쩌귀·빗자루·책잡·문서·끈·지팡이·작대기 (각 1)	30	38.97
	衣	신발(6)·옷(4)·바늘(2)·갓(2)·감투(1)	15	19.49

전부가 用途物로서 食·住·衣 순차로 나타나고 있다. 77개 중 식생활과 관계된 用途物이 41.56%로 으뜸이고 住生活에 관계된 것이 38.97%, 衣生活에 관계된 것이 19.49%로서 食生活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住生活에서 집(家)이 으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고 衣生活에서 신발은 食生活에서 運搬用具인 쪽박·자루·병·삼태기·망태·바구니 등과 연관되어 生計活動을 노출시킨 勤實性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用具를 통해서 感知할 수 있는 것은 當時의 文化 程度와 食
→住→衣 순차에 따른 社會 發展 過程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3) 食 物

〈 表 · 3 〉 食 物 分 類

上位材	中位材	下 位 材	累 計	%
食 物	植物性	떡(8) · 죽(3) · 장(3) · 기름(3) · 보리(3) 밥(2) · 국(2) · 딸기(2) · 개역(2) · 양식(2) 조 · 설탕 · 외 · 두부 · 범벅 · 식초 · 김치 · 술 · 수재비(각 1)	40	83.34
	動物性	고기(2) · 횃간(1)	3	6.25
	기 타	물(2) · 건지 · 국물 · 반찬 (각 1)	5	10.42

當時 本島民의 食生活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시킨 食品目錄이 되고
있다. 植物性 음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動物性 肉類는 일반 서민으로서는 호강에 겨운 것이었다.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어쩌다 忌祭日이나 잔치 · 생일 때쯤이나 고깃맛 잊을까
봐서 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입은 알고 목 모른 음식.〉이란 俗談대
로였다. 지금도 고령자들은 반찬 투정하는 家童들에게 입버릇처럼 회상
시키곤 한다. 〈미친놈 횃간 집어삼키듯 한다.〉는 俗談만 보더라도 얼
마니 肉食을 갈망하고 있었나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곧 本
島 生活의 困窮性을 말해 주고 있다.

여하간 飲食의 충족은 생활의 선행 조건으로 296 篇의 속담 중에

< 먹는, 것 > 과 관계된 것이 52 篇이나 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4) 風 物

地勢的 特性을 내세우기 위해서 自然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風物이란 말을 썼다.

이 풍물이 나타나는 것을 열거해 보면 돌(11), 나무(6), 바람(4), 비(2), 산(1)이 고작이다. 수효면에서는 劣勢나 本島의 代名詞格인 三多 중에 돌에 해당하는 돌과 바람이 등장한다. 이것을 立地性에 의한 자연 현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생활관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돌은 불편을 주는 반면 유용한 활용물로 轉用시켜 나갔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人性은 놀라운 것이었다.

○ 뿔자 종즈 돌 막아 논다.

(되려는 종자 돌 막아 놓는다.)

○ 담 터진 밧더 믱쉬 안 들랴.

(담 허무러진 밧에 마소 안 들랴)

○ 짐 진 놈이 광을 좇주.

(짐 진 놈이 광을 찾는다.)

여기서 돌·담·광은 단純한 자연물이 아닌 人工을 통한 用途物로 變換시켜 활용하는 슬기의 한 면을 보여준 것이고

○ 질엿 돌도 연분이 서사 찬다.

(질엿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애기 어멍 삼사월에 돌이라도 니 아니 들엉 못 먹나.

(애기 어머니 삼사월에 돌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이 돌은 평소에 늘 대하고 있는 하잘 것 없는 것이로되 모르는 사이에 천연 무관할 수만 없는 親和力이 潛在된 有機性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또

○ 먹돌도 뿔람시민 고망난다.

(차돌도 뿔으노라면 구멍난다.)

이는 아무지지 못한 孔質인 玄式岩도 아니고 땀땀하기 이를 데 없는 차돌인 데도 끈덕지게 뿔으노라면 구멍이 난다는 것은 本島民의 強韌한 의지력을 돋보인 것이다.

바람은 돌과는 對照的이다. 돌은 생활과 연관된 美學的 의의를 동반하고 있지만 바람인 경우는 無益한 것이자 試鍊의 대상으로 경계하거나 원망하고 있다.

○ 남의 첩광 소낭계 뉘름은 소린 나도 살을 메웃다

(남의 첩과 소나무의 바람은 소리는 나도 살 도리가 없다.)

○ 켜당은 옷 우잇 뉘름.

(천적은 옷 위의 바람.)

○ 초정월 뉘름살에 검은 암새 빨 오그라진다.

(초정월 바람살에 검은 암소 뿔 오그라진다.)

이처럼 바람은 虛勢를 나타내거나 加害者가 되고 있다

(5) 人 物

< 表 · 4 > 人 物 分 類

上位材	中位材	下 位 材	累 計	%
人 物	男子	親族	37	30.58
		一般		
		階層		
	女子	親族	41	33.89
		一般		
	中 性		43	35.54

上位材	中位材	下位材	累計	%
	人體	눈(9)·입(7)·크(7)·性器(7)-귀(3)· 손(3)·머리(2)·다리(2)·발·사타구니· 털·목·이빨(각1)		

* 許 僊: 牧使의 이름 (純祖 14 年 武科出身)

* 하우장: 선비

※ 人體欄의 累計와 %를 적지 않은 것은

* 고창놈: 시골놈

人體가 人物일 수 없기 때문임.

여기서 括目할 만한 사실은 男과 女를 대비해서 본 결과다. 우선 女多란 말이 的中된다. 이것은 결코 女子의 존재가 輕視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女子에 관한 俗談數도 男子에 관계된 것보다 5 篇이 더 많은 40 篇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담 자체에 담긴 내용도 男尊女卑의 사상관이 절대적일 수만은 없는 오히려 男子를 능가한 勤實하고 알뜰한 삶의 主役임을 示唆하고 있다.

李乙煥과 金善豐은 그 研究論文에서³⁴⁾ 韓國에는 女子의 가치성을 중시한 속담은 殆無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本島 女性 俗談에는 女子의 重視性도 역력히 드러나 있다.

34) 金善豐: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族學 民俗學會 1972. p. 14.

李乙煥: 「韓國女性俗談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亜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3. pp. 109 ~ 110.

○ 노 허끈 하르방은 아장 울곡, 실 허끈 할망은 아장 묻다.

(앞의 訳 参照)

○ 딸 뇌 됴 양재 안 돌곡, 피 뇌 됴 * 장예 안 비쥔다.

(딸 뇌 두고 양자 안 데리고, 피 뇌 두고 장예 안 빗진다.)

○ 아들 못난 전 혼 집 망호곡, 딸 못난 전 양집 망호다.

(아들 못난 것은 한 집 망하고, 딸 못난 것은 양집 망한다.)

○ 혼 사름 트라지면 으섯 가시가 트라진다.

(한 사람 비틀어지면 여섯 사이가 비틀어진다.)

○ 홀아방은 왜문에 왜들쳐귀, 홀어명은 정동화리가 아홉.

(홀애비는 외문에 외들쳐귀, 홀어미는 청동화로가 아홉.)

○ ㄱ튼 품이민 홀어멍집 드사리 산다.

(같은 값이면 과부집 머슴살이 한다.)

이들 속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멸시 대상으로서 무대접만 받던 존재가 아님이 自明해 진다. 男子보다도 훨씬 더 인내성이 있고 勤實하며 家運을 좌우하는 主役인 동시에 人情 있고 실속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도 남는다.

男女別 구성을 보면 둘 다 가정 중심의 親族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女子의 경우가 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녀자의 본분과 활동 반경이 가정을 위주로 생활했던 慣例에서 비롯된 양상이다. 반면에 男子에게 촌장·좌수·하우장 등의 신분이 位階를 말해 주고 있듯이

* 장예 : 꾸어 드려오는 곡식

그 생활 무대가 宦界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특히 親族 관계에서 시앗의 등장이 첫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本島는 女子가 많기 때문에 僧도 처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심지어 거지까지도 妻妾을 거느리고 살았다는³⁵⁾ 것과의 연관성을 갖는 데서 온 현상이라 하겠다

男女의 구별이 불분명한 中性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도둑(6)·부자(3)·거지(3)·종(3)에서 보는 것처럼 생활 여건에서 빚어지는 困窮性이 가져다 준 생활상의 측면을 암시해 주고 있다

끝으로 人體에 관계된 부분은 金善豐의³⁶⁾ 「諺語素材의 分析」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눈(9)·입(7)·코(7)·性器(7)·귀(3)·손(3)·다리(4 : 발·사타구니 포함)·머리(2) … …의 순으로 드러난 양상을 분석해 보면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능 발휘의 중추적 媒體란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논급한 動物·用具·食物·風物·人物別로 분류된 素材를 종합하여 그 분포율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35) 李元鎮：「耽羅志」 前掲 耽羅文献集 p. 214.

“女多男少 僧皆作家寺傍以畜妻子 雖行乞者 並畜妻妾”

36) 金善豐：「諺語素材의 分析」 前掲書 pp. 5 ~ 6.

〈表・5〉 素 材 分 布

素 材	人 物	動 物	用 具	食 物	人 體	風 物
累 計	121	87	77	48	45	24
%	30.10	21.65	19.16	11.95	11.20	5.98
順 位	1	2	3	4	5	6

결론적으로 本島 俗談의 중심 素材는 생활의 力動性에 기인한 生業 수단과 風土性과의 복합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Ⅵ. 主題의 特性

前述한 背景・生業・素材上에 나타난 特性들이 融合 凝縮된 것이 本島 俗談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主題 분류에 따른 特性의 抽出은 환경 여건인 風土性과 깊은 연관성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性向 檢出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本島民의 特性에 까지 接脈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분류에 임했을 때 그 한계성이 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일찌기 金思燁³⁷⁾ 分類의 方向을 이론면과 내용면으로 구분하고 이론면에서의 역사적 구분에 의한 분류는 불가능에 가깝다 했고 오직 내용면에 의한 地域的 구분에 따른 例示만 보였을 뿐이다 또 徐石演은³⁸⁾ 俗談 연구상의 난점 하나가 분류에 있음을 지적하고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복잡 다양해서 타당하고 유용한 분류의 기준이라는 것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또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가면 李乙煥³⁹⁾의 경우에는 特定 분야인 韓國 女性 俗談에

37) 金思燁:「俗談論」前掲書. pp. 25 ~ 26. "歷史的 區分으로 <上古諺><中古諺><近古諺><近世諺><現代諺>, 地域的 區分으로 <普通諺><道諺><郡諺><鄉諺><外來諺>"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38) 徐石演:前掲書, pp.461~462.

39) 李乙煥:「韓國女性 俗談에 關한 研究」前掲書. pp.117~120.

女性俗談 內容分類를 "A. 생활 예지에 관련된 것. B. 처세 생활에 대한 경계 교훈에 관련된 것. C. 선배여성의 지식전달, 사실 보도. D. 여성에 대한 비난, 험담, 조소에 관련된 내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

국한시켜 그 내용 분류를 생활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고 있고, 金道煥⁴⁰⁾은 9 가지 類型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떻든 萬人 共感의 객관성을 면 典型的 분류법은 없을지 모르나 각기 제 나름대로의 觀點에 의한 분류는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本人 나름대로 俗談의 主題에 따라 生計觀・倫理觀・運命觀으로 三分하여 大主題를 設定하고 다시 이들을 13 개의 小主題로 細分함으로써 나타난 特性을 抽出해 보았다.

〈表・6〉 主 題 分 類

大主題	小主 題	累 計
生計觀	實利(37)・苦衷(26)・勤實(20)・儉約(16)	123
	自立(9)・強靱(8)	
倫理觀	言行(45)・警世(43)・人情(37)・守分(34)	159
運命觀	運數(7)・吉凶(12)・未來(4)	23

(1) 生計觀

이것은 生計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생활상을 통해서 본 島民의 性向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6 개의 小主題群을 類概念으로 묶어서 命名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生計는 死活과 밀착된 가장 기본 과제였다.

40) 金道煥 「한국속담의 심리적 분석연구」 師大論文集 2輯 釜山大師大 1975. pp 232 ~ 244.

“ ①嘲笑型 ②攻擊型 ③恨歎型 ④教導型 ⑤指示型
⑥慰勞型 ⑦要求型 ⑧告知型 ⑨語戲型 ”

그 파제의 핵심이 生業인 바 그에 따른 생활관이 정립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生計觀에 나타난 俗談의 主題를 〈表・6〉과 같이 분류하고 그 特性을 集約했다.

① 實 利

俗談의 사상적 기반은 現實主義的 경향이 압도적으로 현저해서 實利主義와 安全主義라고 할 수 있다⁴¹⁾ 이는 실용적 가치관에 입각한 속담의 효용성을 말하는 것으로 本島 속담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슨 일이나 利得이 있어야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得失에 의한 이해 관계가 중시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도 〈먹는 것〉에 관계된 것으로서

○ 못 먹나 못 먹나 허명 겁죽까지 다 먹나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면서 점질까지 다 먹는다.)

○ 울르는 영장에 가지 말앙, 지게 송장에 가라.

(요란한 장례(葬禮)에 가지 말고, 지게 송장에 가라.)

○ 주끄는 갠 출꼭, 먹는 갠 슬친다.

(짓는 개는 줄고, 먹는 개는 살찐다.)

의 13篇으로 나타나 있고, 또 〈處世〉에 관계된 것으로는

○ 허던 광질도 돈주켄 허민 안혼다.

(하던 광질도 돈 주겠다면 안한다.)

41) 徐石演：前掲書。p. 432.

○ 새침뚜긴 꺾꼭 배곡, 허위대긴 그렁 죽나.

(새침뚜긴 깔고 배고, 허위대는 그러서 죽는다.)

○ 부짓맹인 데어불지만 호곡, 얻어먹진 못훈다.

(부지쟁이는 데어버리기만 하고, 얻어먹지는 못한다.)

외 19篇으로서 實利性을 위한 俗談은 〈處世〉와 〈먹는 것〉 위주로 되고 있다.

② 苦 衷

생활에 있어서 苦樂은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유독 좋았던 것보다는 고통스러웠던 것이 강하게 살아 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환경 여건이나 心的 苦樂의 強度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어려와 가민 다심어멍 께 포는 디 간다.

(어려워 가면 제모 께 파는 데 간다.)

○ 애기 한 게와시, 물 한 장재.

(애기 많은 거지, 말 많은 부자.)

○ 쫓이 아니민 께꼴을 무사 보리.

(취가 아니면 고양이 꼴을 왜 볼까.)

○ 잘하여도 혼 구송, 못하여도 혼 구송.

(잘하여도 한 흥(불만), 못하여도 한 흥(불만).)

○ 걱정이 웃어사 성드레 간다.

(근심이 없어야 살로 간다.)

○ 돌 *테우리보다 사름 테우리가 더 어렵다.

* 테우리 : 우마를 돌보는 것(사름).

(말 돌보는 것보다, 사람 돌보는 것이 더 어렵다.)

○ 질이 웃으난 혼 길을 건꼭, 물이 웃으난 혼 물을 먹니.

(질이 없으니 한 길을 건고, 물이 없으니 한 물을 먹는다.)

이것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로서 생활의 困窮性과 심적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勤 實

實利가 利益 取得인 이상 거저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利得을 위해서는 男女의 구별이 없이 每事에 성실과 근면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오히려 女子가 男子보다 더 勤實해서 그 강한 활동성이야말로 앞의 人物 素材 분류에서 언급한 대로 대단한 것이었다

○ 좀너 애진 일뻘만에 것 백인다.

(잠너 애기는 이레만에 밥 먹인다.)

○ 나드는 개가 꺾을 문다.

(니드는 개가 꺾을 문다.)

○ 어스름 줌 미치민 부재로 산다.

(어스름 잠 미치면 부자로 산다.)

○ 눈썹에 불부터도 끌 겨를 웃다.

(눈썹에 불붙어도 끌 겨를 없다.)

○ 켜 물 성안 감시민, 뜯 물 * 마으니 마르 간다

* 마으니 마르: 地名(A + B 型의 예시 속담 参照)

(빠른 말 성안(城内) 가고 있으면, 느린 말도 ㄱ으너므르 간다.)

이들은 勤実性을 事實的으로 드러낸 것이고 다음의 것들은 迂廻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 물 들어사 곶바리 잡나.

(물 들어야 곶동 잡는다.)

○ 조는 집에 자는 사위혼다.

(조는 집에 자는 사위한다.)

○ 사냥 들어사 개 ㄱ리친다.

(사냥 들어야 개 가르친다.)

○ 여자로 나느니 췌로 나주.

(여자로 나느니 소로 낳지.)

○ 놀다 죽은 염송애기나, 기다 죽은 황밧갈췌나.

(놀다 죽은 염소나, 기다 (활동하다) 죽은 황소나.)

이처럼 逆行이나 自虐으로써 노고의 極限的 표현인 勤実도 있으니 本島民은 모름지기 肉身을 통한 부지런 功으로 살았던 痛苦를 대변해주고 있다.

④ 儉約

勤実이 뼈를 깎는 듯한 노고의 痛苦가 뒤따른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얻은 財物은 피와 땀의 結晶이었다. 그러므로 호사나 낭비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럴 만큼 안일한 여유가 주어지지도 않았다. 오직 節約만이 부족한 物量을 극복하는 최선의 생활 철학이었다.

이와 같은 점소와 절약은 마침내 島民의 생활 습성이자 信條로 굳어지게 되었다.

○ 동넷 집 식개 넘어나민 사흘 불 안 쏘나.

(동넷집 제사 넘어나면 사흘 불 안 댈다.)

○ 제 불리는 부재 웃다.

(겨 불리는 부자 없다.)

○ 호 돌에 *개역 시 번, 조배기 시 번 호민 집안 망훈다.

(한 달에 개역 세 번, 수제비 세 번 하면 집안 망한다.)

○ 생이 다리 하나로 *꼴막 상뒤 다 먹인다.

(새 다리 하나로 꼴막 상듯군 다 먹인다.)

○ 입은 알곡, 목 모른 음식.

(입은 알고, 목 모른 음식.)

○ 입 버릇은 사흘이민 고친다.

(입 버릇은 사흘이면 고친다.)

이 모두가 食生活과 관계되고 있는 것으로서 食糧難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앞의 食物 素材 분류를 통해서 본 困窮相의 發現과 합치하는 것이다.

⑤ 自 立

환경적 여건이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지 않고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는 自立의 의지를 심어 갈 수밖에 없었다. 더우기

* 개역 : 보리나 콩을 볶아서 간 가루.

* 꼴막 : 지명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本島의 家族 構造부터가⁴²⁾ 核家族 制度로서 老父母와 자식지간에도 分家하여 각기 自給自足を 위한 독립 生計에 헌신하는 생활관이 그대로 自立의 터전을 다지게 한 것이다.

○깁이 보말도 집은 싣나.

(게와 고동도 집은 있다.)

○물보리 닷 ~~내~~만 시민 처가살이 안호다.

(물보리 닷 되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한다.)

○ *허벅 진 이 *호이호난, 팽 진 이도 호이호다.

(허벅 진 이 호이하니, 병 진 이도 호이한다.)

○짐 진 놈이 광을 좇주.

(짐 진 놈이 광을 찾는다.)

○나 것 웃언 놈이 거 먹젠 호난 숭도 하다.

(내 것 없어 남의 것 먹으려니 흥도 많다.)

이렇듯 独自の 생활 능력이 없으면 苦衷이 크다는 依他性の 不在를 드러내고 있다.

⑥ 強 韌

本島民의 勤実・儉約・自立의 性向은 強韌性を 필연적으로 유발시켰다. 그래서 勤勉・儉素・自立・強韌(不敗)이 本島 정신의 基底를

42) 玄容駿: 「民俗을 통해 본 耽羅精神」 前掲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주제 발표요지 pp. 52~54.

* 허벅: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 (모양은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 아가리가 좁음)

* 호이: 무거운 짐을 내려 놓거나 지었을 때 내는 소리

형성하고 있다는 見解에⁴³⁾ 대한 肯定的 傍證이 되고 있다. 바늘로
쪼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야무진 氣像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먹돌도 졸람시민 고망 난다.

(차돌도 뚫으노라면 구멍 난다.)

○ 한물 아래 칼 발앙 든다.

(한물 아래 칼 받아서 (품어서) 들어 간다.)

○ 입만 가지민 서울 이서방 집도 훑아 간다.

(입만 가지면 서울 이서방 집도 찾아 간다.)

○ 제물에 준 놈 거시지 말라.

(제물에 준 (마른) 놈 건드리지 말라.)

○ 애기 어떻 삼스월에 돌이라도 니 아니 들엉 못 먹나.

(애기 어머니는 삼사월에 돌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 먹는
다.)

이들 強靱性은 폐쇄적 保守性이 아닌 불우한 여건에 挑戰하여 萬
難을 超克하는 백절불굴의 不敗之像으로 승화된 모습을 담고 있다.

43) 「耽羅精神 探究 세미나 주제발표요지」 제주도문화재과, 1979.

※ 濟州大學論文集 第11輯, 濟州大學, 1980. pp.23~50에 玄平孝外
7人「耽羅精神探究」라는 題下에 종합 수록됨.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p.18

金仁濟: 「倫理的 價值觀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pp.39~40

玄容駿: 「民俗을 통해 본 耽羅精神」 p.67

姜景璿: 「風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p.88

金榮敦: 「民謡를 통해 본 耽羅精神」 p.155

梁重海: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p.174

(2) 倫理觀

生計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人倫 道德을 저버린 無知와 非理가 예상될 만큼 不道德하고 무절제한 사회는 아니었다.

윤리란 善한 행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福利 뿐만 아니라 他人과의 連帶觀念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는 ‘슈바이처’의 말처럼 학문을 통한 敎化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인간 본연의 心性은 健在했었다. 生計觀을 통해서 보았듯이 환경에 적응하여 순박한 생활을 하면서 眞率한 기풍을 美德으로 지녀 살아 왔다. 그것은 이 主題 분류 가운데서 倫理觀에 관한 俗談의 양이 많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아무리 각박한 현실일지라도 人倫을 망각하거나 守分을 저버리는 것을 크게 警戒했었다. 그래서 이들 俗談群을 4가지 小主題로 분류하고 生計觀에서 취한 說明 方式을 따랐다.

① 言 行

言行은 道義의 척도인 만큼 가장 인간스러운 바탕이다. 그래서 倫理觀 부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 끝은 낭은 가운데 산다.

(끝은 나무는 가운데 선다.)

○ 고운 사람은 맥을 써도 곱다.

(고운 사람은 망태를 써도 곱다.)

○ 인사 안 놈 췌 X 혼다.

(인사 아는 놈 소X 한다.)

○ 도둑놈광 셋뭇은 무끄민 땀나.

(도둑놈과 멧뚝은 묶으면 닮다.)

○ 몰도 칠팔춘을 쏠린다.

(말도 칠팔춘을 가린다.)

○ 비차락으로 개도 안 뜯는다.

(비자루로 개도 안 때린다.)

○ 조근 꿰기 가시 세다.

(작은 고기 가시 세다.)

○ * 새똥 ㄹ 작은 개도 안 먹나.

(새똥 마디 (寸) 는 개도 안 먹는다.)

○ 비바리 늙어 가면 ㄹ래착 지엄 산드레 오른다.

(처녀 늙어 가면 땃돌짝 지고 산으로 오른다.)

○ 행실 배우랜 호난 흠어멍집 강생일 ㄹ린다.

(행실 배우라고 하니 과부집 강아지를 때린다.)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善行 자체를 나타낸 것은 극소 수고 非行이나 非禮를 告發한 점이다. 또 言에 관한 俗談보다 行動에 관한 것이 절대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론적 空論보다는 실질적 力行이나 實踐篤行만이 人道에 의 回歸策으로 여겼던 것이다.

② 警世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독자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규범과 사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正道에서 이탈했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常存

* 새똥 : 三男 중에 二男이 싸놓은 똥.

하고 있는 한 警戒도 常存한다. 그러기에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슬기와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은 소중한 것들이있다.

○ 귀소문 말양, 눈소문 흉라.

(귀소문 말고, 눈소문 하라.)

○ 득를 쉼 눈을 보꼭, 찌를 쉼 뿔을 보라.

(뿔 소는 눈을 보고, 찌를 소는 뿔을 보라.)

○ 아이 앞이선 입도 축말라.

(아이 앞에서는 입도 놀리지 말라.)

○ 갠 놈 뜬 놈만 못훈다.

(빠른 놈 느린 놈만 못한다.)

○ 코 부튼 아이 손엇건 톨아먹도 말라.

(코 물은 아이 손의 것은 뜯어먹지 말라.)

○ 좁은 입으로 내친 말, 넓은 치매짜으로 못막나.

(좁은 입으로 낸 말, 넓은 치마자락으로 못 막는다.)

○ 소두린 마치민 ㅋ짱훈다.

(고자질은 마추면 꼭 같다.)

○ 늙으니 몽둥인 방구석에 세와 텨 간다.

(늙은이 지팡이는 방구석에 세워 두고 간다.)

○ 장항광 어린 아인 실려야 존나.

(장독과 어린 아이는 시려야 좋다.)

거의가 實利를 위한 處世訓이면서도 야망에 찬 高官大爵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功名心을 경계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守分을 天理로 아는 순박한 생활관의 표명이라 하겠다.

③ 人 情

물질 생활은 가난했으나 풍부한 것은 人情이었다. 이웃뿐만 아니라 部落 단위로 서로 돕는 相扶相助의 전통적 美風良俗이 刻薄한 世態를 달랠 수가 있었다. 남을 도울 만큼 여유 있는 생활일 수는 없으나 十匙一飯의 隣補 정신은 강하여 남의 일을 내 일같이 걱정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도 好事多魔인 反目嫉視도 없지 않았다. 이같은 好不好的 心意 樣相은 두 部類로 드러나고 있다.

○ 굶이나망정 나 어멍 시민 고은 어멍 웃어도 산다.

(굶이나망정 내 어머니 있으면 고은 어머니 없어도 산다.)

○ 보리떡을 먹이엔 허멍, 다심어멍을 어멍이엔 허랴.

(보리떡을 먹이라고 하며, 계모를 어머니라고 하랴.)

○ 지름 줄 씨앗 웃다.

(기름 줄 씨앗 없다.)

○ 나 어멍은·그리는 애기, 늙은 주난 종으로 본다.

(내 어머니는 그리워하는 애기, 남에게 주니 종으로 본다.)

○ *살챇보리 저죽채 먹어도 씨앗이랑 상대 말라.

(살챇보리 겹질채 먹어도 씨앗은 상대 말라.)

○ 각시가 아까우민 처가집 이똥도 가깝다.

(아내가 아까우면 처가집 섬돌도 아깝다.)

* 살챇보리 : 까끄라기 따위를 문질러 정하게 다듬지 않은 보리.

- 이녀 부를 위하젠 하민, 늑이 부를 위해사 한다.
(자기 부모를 위하려면, 남의 부모를 위해야 한다.)
- 숭이 웃으민 메누리 다리가 허영.
(흥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허영다.)
- 찌앗은 동세보다도 낫다.
(시앗은 동서보다도 낫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 表 · 4 > 人物 분류의 女子 親族 관계와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서 繼父母와 자식, 姑婦間이나 本妻와 妾의 갈등은 보편화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⁴⁴⁾ 女同孀間에 나타나는 갈등은 시앗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孀父母에게서 물려 받은 遺産의 불균형을 媒体로 한 生計 여건의 斷面인 것이다.

- 비는 늑안틴 지어사 한다.
(비는 늑한테는 져야 한다.)
- 아이광 늑으닌 케는 디로 간다.
(아이와 늑으이는 사랑하는 데도 간다.)
- 늑광 심백은 하여도 게십이랑 말라.
(남과 경쟁은 하여도 시기는 말라.)
- 흙생 하영 · 그린디 웃다.
(예도 (하십시오) 써서 그른 데 없다.)

44) 李乙煥: 「韓國女性 俗談에 關한 研究」 前掲 亜細亜女性問題研究所 pp. 109 ~ 117

○ 양식 싸지 말앙 벅을 멀리 두라.

(양식을 싸서 가져가지 말고 벅을 멀리 두라.)

○ 준 원순 싯곡, 안 준 원순 웃다.

(준 원수는 있고, 안 준 원수는 없다.)

이처럼 人情의 소중함을 人間事 전반에 걸쳐 드러내 보이면서도 <준 원수는 있고, 안 준 원수는 없다. >에서처럼 벼풀었던 溫情이 안 벼품만 못한 이율배반성도 있어 인정의 미묘함은 時空을 초월한 것임도 말해 주고 있다.

④ 守 分

本島 俗談에 나타난 警世가 實利를 위한 處世訓이면서도 능력의 한계를 무시한 야망에 찬 功名心 不在 현상은 분수를 天理로 아는 至純한 생활관의 表明임을 앞에서 논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생활관이 그대로 本島民의 守分인 것이다.

○ 기시린 도새기 두라맨 도새기 타령호다.

(그슬린 돼지 매달은 돼지 타령한다.)

○ 나 홀 말 사돈이 혼다.

(내 할 말 사돈이 한다.)

○ 너미 꼴리당 눈 *까진 사워 혼다.

(너무 가리다가 눈 까진 사워 얻는다.)

* 까진 : 까지다 (달같이나 항아리 같은 것이 깨어지다.)

o 엄지손가락 귀코망에 안 들 소리.

(엄지손가락 귀구멍에 안 들어갈 소리.)

o 이녀 집 식개 모르멍 늬이 식개 알카.

(제 집 제사 모르면서 남의 제사 알까.)

이밖에 또 威勢나 虛勢는 물론 過慾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것들을 들 수 있다.

< 威勢에 관한 것 >

o 켜당은 옷 우잇 북름.

(친척은 옷 위의 바람.)

o 씨어멍이 솟덕에 아자도 호령 한다.

(시어머니가 부뚜막에 앉아도 호령 한다.)

o 식개집 아이 몫션다.

(제사집 아이 사납다.)

o 남조 드딘 풀은 유울곡, 예편 드딘 풀은 안 유운다.

(남자 드딘 풀은 이울고, 여자 드딘 풀은 안 이운다.)

< 虛勢에 관한 것 >

o 술 혼 잔 먹으민 외조캐 밧 사주켄 한다.

(술 한 잔 먹으면 외조카 밧 사주겠다 한다.)

o 하루 굿 보젠 코 까꾼다.

(하루 굶 보려 코 짹는다.)

○ 웃인 놈이 신추록 흥곡, 못난 놈이 잘 난 채훈다.

(없는 놈이 있는 채하고, 못난 놈이 잘 난 채한다.)

○ 거짓 똥놈도 개가 부치럽다.

(거짓 똥놈도 개가 부끄럽다.)

○ 뻥진 이 호이호난, 똥똥진 이도 호이훈다.

(뻥진 이 호이하니, 똥똥진 이도 호이한다.)

< 過慾에 관한 것 >

○ 공꺼엔 흥민 눈도 벌경 코도 벌경.

(공것이라면 눈도 벌경고 코도 벌경다.)

○ 노리 케기 흥 점 먹젠 흥당, 지 제기 열 점 일훈다.

(노루 고기 한 점 먹으려다, 제 고기 열 점 잃는다.)

○ 놈이 밥사발은 높아 뱀다.

(남의 밥사발은 높아 보인다.)

○ 싹은 평 놈 똥, 늑는 평 심쟁 훈다.

(잡은 평 놈 두고, 나는 평 잡으려 한다.)

○ 욕심이 세면 도둑이 반이여.

(욕심이 세면 도둑이 반이여.)

이들 俗談들을 자칫하면 本島民의 생활 신조인 儉約이나 守分에
背馳된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威勢, 虛勢, 過慾을 告發하는 입장에
서서 오히려 儉約과 守分の 옹호자이자 守門將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運命觀

運命은 인위적으로 좌우할 수 없는 天意에 의한 숙명적인 것으로 ‘順天者興，逆天者亡’이라는 인생관이 골수에 박히고 있었다. 吉凶禍福이 다 天賦의 불가항력인 천리인 만큼 그에 순응하는 것만이 현명한 삶의 철학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既存 觀念은 운수나 吉凶을 중심으로 한 現世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未來性도 나타나 있다.

① 運 數

오늘날과 같이 운명에 挑戰하면서 새 삶을 창조하는 未來指向性인 인간 実存을 의식한다는 것은 超人的 思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모름지기 萬事는 타고난 운이 없이는 亨通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 * 정의서 죽 쏘던 솥 *모간 와도 죽 쏜다.

(정의서 죽 쏘던 솥 모간 와도 죽 쏜다.)

○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 게와시 떡 쳐 먹젠 흥난 시리 벌려진다.

(거지 떡 찌 먹으려니 시루가 깨진다.)

* 정의 : 행정주역의 하나로 지금의 남제주군 동부지구

* 모간 : 행정구역의 하나로 지금의 제주시를 포함한 북제주군 일대

질엿 돌도 연분이 셔사 찬다.

(질엿 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죽은 낭 아래 살 낭 섰저.

(죽은 나무 아래 살 나무 있다.)

즈들 사람은 산지물에 가도 궁근 팡에 안나.

(걱정하는 사람은 산지물에 가도 흔들리는 팡에 앓는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다 제 운수에 해당되므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여 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② 吉 凶

운수에 직결되고 있으면서도 숙명에의 歸依가 아닌 실제 생활면에서
일어나는 吉凶의 徵候를 말하거나 그 實相을 드러내고 있다.

○ 준 세 꼭리 켜다.

(준 소 파리 득실거린다.)

○ 즈들 일 웃으난 눈 개 발 뵈나.

(걱정할 일 없으니 눈 개 발 밝는다.)

○ 집안에 승시들젠 호난 틀은 독도 고기약호곡, 기시린 듯이 두
름을 둔나

(집안에 흥이 들러면 뜰은 닭도 꼬끼요하고, 그슬린 돼지가 뽕박
질을 한다.)

○ 시랜 호 초는 안 시곡, 마게부터 몬저 신다.

(시라는 초는 안 시고, 마게부터 먼저 신다.)

○ 귀 존 동녕바친 셔도, 코 존 동녕바친 옷다.

(귀 좋은 동녕아치는 있어도, 코 좋은 동녕아치는 없다.)

○ * 족발이가 천주매 난다.

(족발이가 천자마 난다.)

○ 쇠똥에 업더지민, 개똥에 코 맨다.

(소똥에 업더지면, 개똥에 코 맨다.)

○ 살래 아래서 족박 봉근다.

(살강 아래서 족박 주은다.)

요행이나 自招, 雪上加霜의 禍福이 그 系譜를 이루고 있다.

③ 未 來

우리 나라 俗談은 現世主義의 사상만 있을 뿐 來世觀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論及하고 있다.⁴⁵⁾

이것은 既存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내려진 斷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本島 속담인 경우 수집된 현재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宗教觀에 부합된 來世性은 못 된다 하더라도 이에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인은 이 가능성을 '미래성(未來性)'이라고 규정한다.

45) 金道煥: 前掲書 p.270

「 12. 現世주의적 사상……우리 속담들 가운데는 來世主義의 사상의 속담은 하나도 없는 대신 現世주의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들이 있는 데……………」

* 족발이: 절을 적에 발회복 위가 내리 드디어지는 말(馬)

ㅇ 늑이 첩광 소낭게 브름은 소린 나도 살을메 웃다.

(남의 첩과 소나무에 바람은 소리는 나도 살 도리가 없다.)

ㅇ *오름엿 돌광 지새어멍은 궁글당도 살을메 난다.

(오름엿 돌과 양처 (조강지처)는 굴르다가도 살 도리 있다.)

이 두 俗談은 本島謠인 맷돌·방아노래에도 나오는 것으로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빛 좋은 개살구격으로 內實을 가할 수 없다는 데서 現世性이 농후하지만 후자인 경우는 現世主義的 的 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擴大하면 현재 당장은 버림받은 존재이나 먼 훗날 반드시 그 眞價가 인정되어 好期를 맞는 것이니 未來性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 未來性에 접근된다.

ㅇ 귀신 박접호는 집 안 된다.

(귀신 박접하는 집 안 된다.)

ㅇ 산 잘 써사 자손 잘 된다.

(묘자리 잘 잡아야 자손 잘 된다.)

ㅇ 말발이 젖어사 잘 산다.

(말발(馬足)이 젖어야 잘 산다.)

이것들은 現世 위주라기보다 다분히 未來에 力點을 뒀다는 心證을 굳혀 준다.

* 오름 : 嶽에 해당하는 野山

<산 잘 써사 즈손 잘 된다.>는 것은 今世發福이 아닌 後世發福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물발이 젖어사 잘 산다.>는 婚姻時는 평시보다는 다른 변화의 徵候가 있어야 앞으로의 삶에 富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現世를 기반으로 하되 어디까지나 來日을 위한 것이라는 데 未來性을 수증하지 않을 수 없다.

Ⅶ. 結 論

앞의 네 가지 分野인 形態・生業・素材・主題上에서 드러난 濟州島 俗談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다.

I.1) 少数에 국한된 것이지만 俗談의 原始性을 드러낸 辭說型으로서 현재 국내에 알려진 것 중 最長型인데다가 他口碑文學으로까지 轉用되어 한 篇의 民謡를 구성하고 있다.

I.2) 本島 특유의 土俗性和 郷土의 事緣이 담겨져 있다.

I.3) 言語學的 측면에서 볼 때 15 C 語形과 그 변천 과정을 드러낸 古語가 많고 末尾인 叙述形 終結語尾의 原形에 해당하는 것이 4 가지로 나타난다.

Ⅱ.1) 本島 生業의 主宗인 農業, 海業의 實相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기타 雜業인 冠網業・織業・木工業・商業・畜業・사냥 등을 통한 自給自足の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Ⅱ.2) 農業과 관계된 俗談은 立地的 不遇性을 극복해 나가는 勤儉性이 반영돼 있다.

Ⅱ.3) 海業인 수산업과 관계된 俗談은 전국적으로 2.03 %인 데 비해서 本島는 4.73 %로서 二倍나 웃돌고 있으며 海女の 強靱한 生活力이 돋보인다.

Ⅲ.1) 本島 俗談의 素材는 일상 생활 用具인 402개의 具象名詞가 中心 素材를 이루고 있다.

Ⅲ.2) 人物 素材는 121개로 전체의 30.10%로서 男子보다 女子가 더 많다. 실제 俗談도 女子에 관한 것이 40여편으로서 男子에 관한 것보다 5편이 더 많다. 특히 男尊女卑의 사상에만 치우친 韓本土의 女性 俗談과는 달리 女子의 価値性을 力說한 俗談이 健在하고 있다. 또 <表·4>에서 親族 관계의 世襲(첩)이 일위로 浮上된 것은 女多에서 오는 一夫多妻의 默契的 생활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Ⅲ.3) 動物 素材는 87개로 전체의 21.65%로서 家畜(57), 野生類(19), 海物(11)로 모두 實利와 事實性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家畜 가운데 소(20) 말(12)이 많음은 重農性을 나타낸 것이고 野生類는 本島 환경에 적응 棲息하는 것일 뿐 非風土性인 것은 전혀 없다. 海物도 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食用物로 되었다.

Ⅲ.4) 用具別 素材는 77개인 전체의 19.16%로서 食(32), 住(30) 衣(15)생활에 관한 것 순위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명 보존을 위한 본능적 생태로서 當時의 문화 정도와 사회 발전 과정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서 古人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民俗 자료의 목록이 되고 있다.

Ⅲ.5) 食物 素材는 48개로 전체의 11.95%로서 植物性(40), 動物性(3), 기타(5)로 식물성이 압도적이다. 이는 糊口之策에 급급했던 困窮性을 드러낸 것으로 실제 먹는 것과 관계된 俗談도 296편 가운데

데 52편이나 된다.

Ⅲ.6) 人体로 본 素材는 전체의 11.20%인 45개로서 눈(9)·입(7)·코(7)·性器(7)·다리(4)·귀(3)·손(3)·머리(2)……순위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간 활동의 중추적 機能素로 육구 충족의 媒体임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Ⅲ.7) 風物 素材는 24개로 전체의 5.98%로서 돌(11)·나무(6)·바람(4)·비(2)·산(1)등 微少하지만 三多 중 돌과 바람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돌은 有用物로 전환시키거나 親和力이 잠재된 有機性을 부여함과 동시에 強韌한 의지력이 돋보인 美学的 의의가 드러난다. 바람은 試鍊의 대상으로서 경계되고 있다.

Ⅳ.1) 主題 分類에 따른 特性을 抽出해 본 결과 우선 生計觀·倫理觀·運命觀으로 三分할 수 있다. 生計觀은 생계 해결 과정에 나타난 性向의 俗談 123편을 6개의 小主題로 분류했고, 倫理觀은 人道를 겨냥한 159편을 4개의 小主題로 분류했다. 또 運命觀은 인위적으로 불가항력인 숙명과 연관된 23편을 3개의 小主題로 분류함으로써 모두 13개의 小主題群으로 압축시켰다. 이들 小主題는 韓本土 속담에도 나타나는 성격이지만, 本島 특유의 환경적 여건에 말미암은 특성이다.

Ⅳ.2) 實利 ; 實利主義 내지 現實主義的 경향이 짙게 드러나 있는 바 得을 위한 處世와 먹는 것 위주로 되고 있다.

IV.3) 苦衷 ; 생활의 困窮性과 人間 관계의 心的 갈등에서 빚어지고 있다.

IV.4) 勤実 ; 근면 성실만이 불우한 환경을 超克할 수 있는 무기였다. 女子의 근실성과 활동력은 男子를 능가하는 것이다.

IV.5) 儉約 ; 本島民의 생활 신조로 食生活과 관계되고 있다. 호사나 낭비는 절대 禁物로서 食糧難의 심각성은 食物 분류에서 드러난 困窮性과 일치한다.

IV.6) 自立 ; 依他心을 버리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해 나간다는 독립 生計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IV.7) 強靱 ; 勤実・儉約・自立과 함께 本島民의 정신적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폐쇄나 保守가 아닌 불우한 환경에 도전하여 萬難을 극복하는 백절불굴의 不敗之像을 담고 있다.

IV.8) 言行 ; 말보다 행동을 강조한다. 이론적 空論보다는 實踐篤行만이 人道에의 回歸策임을 피력했다.

IV.9) 人情 ; 相扶相助와 隣補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는 親族間의 갈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중에도 특이한 것을 女同嬭之間이 시앓간의 갈등보다도 더한 것으로 나타난다.

IV.10) 警世 ; 야망적 功名心을 경계한 것은 없다. 實利를 위한 獨自性이 자칫하면 正道에의 이탈 가능성을 規制하고 있다.

IV. 11) 守分 ; 안전 제일의 實利를 위한 處世訓들이다. 虛勢나 威勢 過慾을 배격하고 自制力을 촉구함으로써 安分知足의 생활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IV. 12) 運數 ; 운을 다고 나아만 萬事 亨通할 수 있는 것이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天命에의 순종을 敎示하고 있다.

IV. 13) 吉凶 ; 운수에 相通하고 있으면서도 運命에의 의존이 아닌 오직 吉凶 자체의 徵候나 實相을 表明할 뿐이다.

IV. 14) 未來 ; 韓國의 俗談은 現世主義的 사상만 있을 뿐 來世觀이 반영된 것은 全無한 것으로 論及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本島 俗談에는 다분히 來日을 내다보는 來世性에 접근되는 未來性이 반영되고 있다.

결국 本島 俗談의 特性은 불우한 환경적 風土性에 뿌리 박은 島民의 생활상과 心像을 특유의 言語 形態로 表出시켰다는 데 있다.

參 考 文 獻

- 丁苦鏞；「耳談續集」 增補與猶堂全書，景仁文化社，1970。
- 李基文원；「俗談辭典」 民衆書館，1962。
- 金思燁；「俗談論」 大建出版社，1953。
- 徐石演；「俗談學研究」 來醒朴仁守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會，1974。
- 玄平孝；「濟州島 方言研究」 精研社，1962。
- 張德順外三人；「口碑文學概說」，一潮閣，1971。
- 秦聖麒원；「濟州島 俗談」 第1. 2輯，프린트版，1958. 1959。
- 金榮敦；「濟州島 民謠研究上」，一潮閣，1965。
- 金榮敦；「濟州島 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1971
- 金榮敦；「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愚邊時敏博士回甲紀念論文集
別刷，1978。
- 金榮敦；「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濟州大學論文集 第10輯 濟州
大學，1978。
- 金榮敦；「제주도 민요 맺돌·방아노래」국어국문학 82. 국어국문학회，
1980。
- 李乙煥；「國語學概說」 國語國文學叢書 第1輯 宣明文化社，1973。
- 李乙煥；「韓國女性俗談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亜細亜女性問題研究
所，1963。
- 李乙煥；「한국속담 어·귀·절 유형연구」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1971。

金善豐；「諺語素材의 分析」 韓國民俗學，民俗學會，1962.

金善豐；「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俗學，民俗學會，1972.

金宗澤；「俗談의 意味機能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 34・35 合併號，
국어국문학회，1961.

沈在箕；「俗談의 意味機能에 대하여」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1977.

金道煥；「한국속담의 심리적 분석 연구」 師大論文集 2輯，釜山師大，
1975.

全在昊；「杜詩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國語國文學叢書 第1輯，宣明文化
社，1973.

金泰能；「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27호. 제주도，1960.

康壽彦；「韓・英語의 俗談比較」 濟州大學論文集 第9輯，濟州大學，1977

姜昌赫；「濟州島 民謡의 特性」 濟州看護專門大學論文集 第四輯別刷，
1978.

金 淨；「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1976.

金尚憲；「南槎錄」 上 同

李元鎮；「耽羅志」 上 同

李 建；「濟州風土記」 上 同

金錫翼；「耽羅紀年」 上 同

玄平孝外7人；「耽羅精神探究」 濟州大學論文集 第11輯，濟州大學，1980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편 「耽羅遺事」 高氏宗門會 總本部刊，1979.

알버트 슈바이처；「生에의 敬畏 'Evolution of Ethics」 現代人講
座，1. 人間과 倫理，博友社，1962.

Characteristics of proverbs in Jeju Do

THE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ERSITY

Ko Jae Hwan

Summary

A proverb expresses the actual world instinctively through human experiences, reflecting the features of an age and the morale of a locality. As for Je-ju Do proverbs, they are brought into close relation with circumstances factors, natural features of Je-Ju Do. Such characteristics are owing to an ocean-bound island and natural stronghold, three calamities (from wind, water and drought), exploitation of corrupt officials and wealthy landowners and invasions from other races.

This thesis places the focus on extracting these characteristics from 296 Je-Ju Do proverbs among 800 ones. The result from the choice and analysis of the proverbs are as follows.

1. Characteristics in form.

1) A story telling form and a historical meaning form:

A story telling form shows the aboriginality of proverbs. It has transferred to other oral legendary literature and become a folk song. Its length is longer than the other. A historical meaning form has local color native to Jeju Do which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knowledge of details and reasons hidden among the proverbs.

2) A linguistical form and characteristic form expressed by the end of words.

As for a linguistical form, it has many archaic words expressed in linguistic form in the 15c or in the course of changes, so that it plays important role as datum to study some courses of the changes. On the other hand, the ending of words equal to the original form of descriptive ending is expressed by four styles.

2. Characteristic in an occupation.

An occupation was an important matter which has an influence upon life and death of the islanders, so that they

had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by means of overcoming several unfavorable conditions. The proverbs are showing that the important occupations in Je-ju Do were agriculture and fisheries, but the islanders attained self-sufficiency through other jobs. Especially, 2.03% of the proverbs all over the country have close relation to fisheries, and so do more than 4.73% of the proverbs all over the island. This proves that the islanders had their diligent and strong capacities because they had to earn a living by fisheries in the ocean.

3. Characteristic in a material.

A subject matter of proverbs is very practical and is chosen from the islanders' living environment. But a subject matter almost consists of nouns, that is, concrete affairs rather than ideological and abstract nouns. For representative examples, persons, animals, instruments, plants, human bodies and natural objects appear in the order named. All of them are stuck fast to the natur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of Je-ju island. That is to say, proverbs have the life-styles and the means to maintain islanders' livelihoods which were fundamental factor for them.

4. Characteristic in the theme.

This is aimed at extracting the features of contents in the proverbs. It consists of a living view, a ethical view and fatal view. Each of them is subdivided into smaller groups

1) a living view.

I subdivided 123 proverbs into 6 smaller groups, utility, diligence, frugality, self-reliance, tenacity and mental suffering by means of dispositions which are reflected in the course of maintaining livelihoods. These are based on the mentality of inhabitants in Je-ju Do.

2) a ethical view.

It controls 4 smaller groups, speech and conduct, a warning to the public, sympathy and fulfillment of one's duty which aim at human fundamental attitude. The proverbs on an ethical view are composed of 159 parts, forming most of all the proverbs.

3) a fatal view.

The islanders accepted their destinies human capacities. The proverbs on a fatal view are composed of 23 parts, dealing with fortune, good or ill luck and

the future life. Especially, in Je-ju Do there are proverbs on the future life which the Korean mainland doesn't have.

In the end, the characteristic of Je-ju Do proverbs has important significance on the point that by means of special word-forms, they expressed the mode of life and mental attitude of the old islanders who had confronted with natural and unfortunate life environment.